미국 생활을 더 풍요롭게 … 평생 전문직 미국 공인세무사

장홍범 교수, 미국 공인세무사 시험 준비반 개강

미국에 살면서 좀 더 발전적 삶을 위해서 혹은 보다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개발을 위하거나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또 '정년도 없이 일정 수입을 유지하며 경기에도 민감하지 않은 안정된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세무사가 되면 세무회계법인의 세무파트에서 일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재정 설계 및 재산 관리 관련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시험 합격 후 즉시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다.

특히 Enrolled Agent, 즉 미국세 무사 자격증은 미국 연방국세청이 발급하는 최고권위의 자격증이다. 세법 문제 등 연방국세청을 상대해야 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는 CPA나 변호사 자격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받는 자격증인 것이다. 단지 CPA나 변호사는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지만 세무사는 연방정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30년간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를 지도하여 온 장홍범 교수가 미국 세무사 시험(Special Enrolled Agent Exam)을 위한 준비 과정을 로스엔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지역에서 각각 개강한다.

수업에서는 연방 개인 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개인연금 및 회사 연금 등 세법 전반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궁금했던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세무사(EA) 자격 취득은 세무회계 및 재정 관련 분야의 전문직 진출을 위한 초석이 되어 미국에서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절호의 기회이다.

▲ OC 강의 모습. 원안은 장홍범 교수

장홍범 교수는 미주 한인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대부로 일컫는다. 미주 본토에 개업 중인 한인 세무사들의70%이상이 장홍범의 교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세무회계법인 '송현' 의 공동대표이며 미주 한인 공인세무사 협회장이기도 한 장홍범의 교수의 세무사 강의는 세무 현장 경험과 함께 특별한 것이 있다. 장홍범 교수에 따르면 "30여 년간의 강의 경험으로 아무런 사전 세무 지식이 없는 분들도 한달간의 강의만으로 세무사 시험에 100% 합격시킬 수 있다." 라고 자신한다. 세무사 시험은 연방국세청(IRS)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모두 4지선다형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영어 독해력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학력이나 전공에 상관이 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국적에도 상관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한다.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반 회사의 회계업무부서나, financial Planning 관련 회사의 상속 및 연금전략팀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무회계 관련 업체의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특히 시험 합격 즉시 개인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는데, 은퇴 나이가 없는 전문서비스업이어서 자신이 원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장홍범 교수의 세무사 시험준비반을 거친 합격생들은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사무실운영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책임지고 뒷받침해준다. 또한 회계학 전공 학생들이 빅4 회계법인에서의 인터십을 원하는 경우, 이 세무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놓으면 인턴쉽자리 찾기가 용이해 지고 따라서 나중에 그런 회계법인으로의 취업의 지름길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빅4회계법인의 경우의 거의 90% 이상의 신규직원을 자기회사의 인턴십풀에서 리크루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13개 파트너 세무사사무실을 두고 있는 세무회계법인 송현이 창업과 실무교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온라인을 통한 세무사 실무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www.eatax.net).

장홍범 교수의 세무사 시험 준비반은 LA한국교육원에서 주중 저녁반이 개설되고 가든그로브의 시민권자협회에서 주중 저녁반과 주말반 그리고 부에나파크의 송현회계에서 오전반이 개설될 예정으로 무료 공개설명회는 7월 18일과 19일로 잡혀있다.

설명회 참석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 문의: (714) 393-2238
www.eatax.net, 카톡(아이디: eatax)

OC페어 개막 … 놀이기구, 먹거리, 공연 등 즐길 거리 다양

OC를 대표하는 여름축제인 OC페어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코스타메사 OC페어&이벤트센터(88 Fair Dr., Costa Mesa, CA 92626)에서 열린다.

행사는 올해로 129회째를 맞았으며 매년 100만여 명이 찾고 있다.

페어에는 각종 놀이기구와 다양한 전시회, 먹거리,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카니발, 아이스 제트 등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놀이기구도 선보인다.

행사장 내 5개의 무대에서는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을 비롯해 지구촌의 전통무용 공연, 가라오케, 우량동물선발대회 등 각종 공연과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개장 시간은 수-금요일은 정오부터 자정,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자정, 월-화요일은 문을 닫는다.

입장료는 일반 12달러(주말 14달러), 60세 이상과 6~12세는 각각 7달러(매주 목요일 무료)이며 5세 이하, 현역 군인 및 참전 용사는 무료이다.

주차비는 일반차량 10달러, 버스 20달러이다.

ocfair.com를 방문하면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